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025

SPRING

이형석 교수 · 성형외과



Care & Love



## 원 고 모 집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환우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몸과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사연은 병원 소식지에 싣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분량 : A4 2~3매의 원고
- 사연 보내실 곳 : pr3700@daum.net 또는 고객센터(3동1층)

## 독 자 Q U I Z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병원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병원보에 모든 정답이 있는 답이 보이는 **퀴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3명을 추첨하여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응답기간 : 2025년 5월 23일(금)까지  
추첨결과 : 2025년 6월 중



지금 바로 카메라를 열어  
Quiz 정답을 남겨주세요  
독자퀴즈 바로가기



# Contents

## Kosin Spirit

- 04 With You, Every Step 김영대 목사 · 원목실장
- 06 필리핀 의료선교 후기 #1 박예선 · 간호대학 1학년

## Medical Essay

- 08 4세대 다빈치 SP 로봇수술과 전립선암 수술 강수환 교수 · 비뇨의학과
- 10 반려동물 알레르기, 원인부터 해결까지 김희규 교수 · 알레르기내과
- 14 새로운 비만 치료제 이야기 II 김부경 교수 · 내분비내과
- 16 수술 후 흉터 관리 이형석 교수 · 성형외과

## Culture & Life

- 19 흙 김희자 수필가
- 22 팀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형신 교수 · 이비인후 감상선 두경부외과
- 24 봄이 오는가보다...창원 김해 불모산 노경만 산 · 여행작가
- 28 내 마음 사랑의 온도 100°C를 전해드리며, 사랑합니다 김영옥

## Kosin Inside

- 31 New face, 처음의 열정으로 고신에서 꿈을 펼치다
- 34 우.부.소 김주영 사원 · 대외협력홍보실
- 38 칭찬 릴레이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서'
- 40 우리 병원 친절직원
- 41 원목실 추천도서
- 42 포커스뷰
- 47 진료를 시작합니다
  
- 48 KOSin 사랑in
- 50 진료시간표



## 2025. SPRING

발행인 최종순 | 발행일 2025년 3월 | 편집인 이형석

발행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홍보협력실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장기려로) 262 | 051)990-3700~2 | www.kosinmed.or.kr

개원일 1951. 6. 21

디자인·인쇄 현대출판인쇄사 051)464-5667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유용한 읽을거리와 건강정보를 담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보는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오니 주위 분들과 함께 읽으시길 바라며, 홈페이지(www.kosinmed.or.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원보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책에 관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협력실(051-990-3700~2)로 연락해 주십시오.

## With You, Every Step

글 | 김영대 목사 □원목실장

“저는요, 복음병원을 못 떠나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부모님께서 다니셨고, 저도 복음병원만 다녔어요. 다른 데 갈 생각을 못 해봤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주신 말씀에서 복음병원의 역사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부산 시민들을 섬겼던 복음병원입니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던 이유는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의 상태에 맞는 처방을 한 장기려 박사님의 ‘닭 두 마리’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다른 약보다 영양의 균형이 필요한 환자에게 먹거리를 처방하셨던 것입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우선시하는 복음병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르신의 손을 잡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자분이 계속 우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계속 우셨어요.”

진료를 도왔던 간호사 선생님의 생생한 증언에서 육신의 질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감정과 마음까지 어루만지려는 복음병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병원은 환자분들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자분들의 삶에 공감하여,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롬 12:15)는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기적은 치료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몸은 다시 병들 수 있습니다. 완성된 기적은 누군가 곁에 있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큰 병원에서 다양한 치료 과정을 경험했지만, 20대 초반의 나이에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자매가 입원했었습니다. 완치를 포기하는 것이 절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환자를 죽음과 가까운 존재로 보는 것이 슬픔입니다.

복음병원에서는 모든 환자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아름다움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하루의 삶에 행복이 깃들



수 있도록 섬깁니다. 아픔과 두려움이 없는 고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합니다. 따뜻한 온기를 감지한 복음병원에서 그 자매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의 긴 투병으로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신 부모님께 마음의 선물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병원은 호텔과 음식점을 예약해 젊은 딸의 소원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마음의 선물을 준비하던 그 딸의 환한 미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가 아니라, 한 가정의 구성원이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분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손을 내어 드리는 복음병원을 추구합니다.

복음병원이 환우분들의 삶에 동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 사람들 속으로 침투해 오신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나눠주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복음병원이 환우분들과 동행하는 이유입니다. 동행을 실천함에 있어 국경, 인종, 나라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통분모를 찾을 수 없는 필리핀 오지에서 7살 가운이는 다시 필리핀을 마음에 품어 재방문을 학수고대했고, 8살 시온이는 필리핀 친구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 영어 공부를 결심했습니다. 함께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이고 우리의 것을 나누기 위한 사랑입니다. 현상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할 때 함께는 실천되는 것입니다.

박노해의 『유보』라는 시에서 태양, 솔씨, 산매화는 자신의 본질에 대해 한 순간도 유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은 유보하지 말아야 한다 / 옳은 건 유보하지 말아야 한다”고 노래했습니다. 오직 “유보할 것은 삶의 본질을 / 유보하려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삶의 본질을 미루고 숨기려고 하는 것을 유보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본질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우리들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하늘 생명으로 무장된 거룩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의 집합입니다. 복음병원 안에서 인간의 모습을 찾거나 이 땅의 가치를 주장하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복음병원은 함께함, 동행함, 그리고 나눔입니다. 그래서 복음병원을 통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병원은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눔을 실천하는 복음병원의 본질입니다. 



필리핀 의료선교 후기 |

## We are the Lord's moving church

글 | 박예선 간호대학 1학년

저의 필리핀 의료선교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We are the Lord's moving church"입니다.

필리핀 선교 이전까지 저의 정체성은 철저하게 세상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하게도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저 건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나의 성공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교회 건물 안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와 찬양,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어쩌면 나에게 너무 과분한 사치가 아닐까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건이 좋아야 감사할 수 있고, 환경이 갖추어져야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부끄럽게도 저의 무의식 속 꿈틀거리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선교를 통해 깨달은 것은 특정 건물이 아닌 우리 한 명, 한 명이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예배할 수 있고, 어느 곳이든, 어느 시간이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교 기간 내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 사랑을 주기 위해 간 그곳에서 도리어 사랑을 받다

첫 해외 선교이자 의료 선교를 가기까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친하게 붙어 다니던 친구들이 선교에 함께 가지 못한다는 소식, 들려오는 필리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두려움 등 갖가지 불참 핑계들만 가득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 롬8:30

저는 늘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



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늘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자를 먼저 부르시고 준비시켜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사랑도 남아있지 않고 제 힘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딱딱해져버린 저의 마음이었지만, 부르신 분만 보고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의존하여 필리핀 이들에게 사랑을 주리라는 작은 결심을 안고 그렇게 필리핀 땅을 밟았습니다.

사랑을 주기 위해 간 그곳에서 저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사랑의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저의 기도를 늘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끊임없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들리던 아이들의 환호 소리와 반짝이는 눈망울들, 들리던 찬양들을 잊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마다의 공연들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삶의 현장에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 언제나 함께하셨던 하나님, 감사로 해석되는 시간들

본부 교회를 떠나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라쿤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배가 움직이지 않아 걸어서 이동해야 했고, 오르막길에 차가 올라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포장되어 있는 아스팔트 도로가 아닌 돌밭 위로 차가 지나가던 때도 있었고, 저녁 식사가 늦어져 밤 11시를 훌쩍 넘긴 시간에 식사를 해야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감사할 수 있었고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힘을 기르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더 이상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 일상의 선교사로, 삶의 예배로,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기

때로는 접수를 통해, 때로는 어린이 사역을 통해, 때로는 뮤지컬을 통해 선교 기간 내내 다양한 모습으로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필리핀에서 만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한국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선교사는 먼 곳에 있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필리핀 의료 선교가 바꾸어준 저의 삶을 잊지 않고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1년 뒤 필리핀 선교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

# 4세대 다빈치 SP(Single Port) 로봇수술과 전립선암 수술



글 | 강수환 교수 · 비뇨의학과

## ●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뇨기계 건강

서구화된 식습관은 대한민국 남성들의 비뇨기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배뇨 장애나 요로결석과 같은 문제를 넘어 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암 등 비뇨기암의 발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남성암 중 발병률 1위를 기록한 전립선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 전립선 질환의 특징

전립선 질환은 크게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으로 나뉩니다. 간혹 전립선비대증이 암으로 발전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두 질환은 발생 부위와 원인이 전혀 다릅니다. 전립선비대증은 요도 주변의 전립선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크기가 커지고, 이로 인해 요도를 압박해 배뇨 장애를 유발합니다. 반면, 전립선암은 전립선 뒤쪽에서 암세포가 자라면서 주변 조직으로 침범하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 ● 예방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려면 식습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전립선암 조기 진단 방법으로는 혈중 전립선특이항원(PSA) 수치를 확인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PSA 수치가 높아지면 조직 검사를 통해 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육류 섭취를 줄이고 콩, 채소, 과일, 생선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로봇수술의 장점과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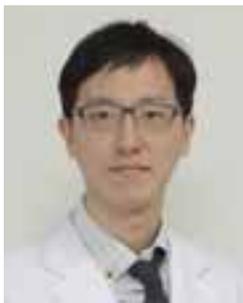
전립선암 치료 방법 중 하나로 로봇수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로봇수술은 비뇨기계 수술에서 처음 시작되어 그 유래가 깊으며, 점차 다양한 분야로 퍼져 활용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비뇨의학과와 대부분의 수술에서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골반수술에 있어 탁월한 안전성과 수술 결과를 보여줍니다. 골반이라는 깊고 좁은 부위의 전립선 제거뿐 아니라 발기신경의 보존, 그리고 절제된 요도의 정확한 문합으로 요실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봇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미용 측면에서도 과거에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개복수술로 큰 절개가 필요했지만, 로봇수술은 1cm 크기의 작은 구멍 몇 개만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수술 도구와 카메라를 삽입해 집도의가 직접 수술하듯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수술 시야를 10배 이상 확대해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위를 섬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통증이 덜하고 회복 속도가 빠르며 흉터가 거의 남지 않아 만족도가 높습니다.

● **최신 로봇수술: 4세대 다빈치 SP**

최근 도입된 4세대 다빈치 SP(Single Port) 로봇수술 시스템은 좁은 시야에서 정교한 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신 기술입니다. 단 하나의 2.7cm 절개만으로 기존의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 환자의 신체 부담이 줄어 듭니다. 또한 기구 충돌을 방지한 설계로 기존 단일공 수술의 한계를 극복했으며, 수술 후 통증과 흉터를 최소화해 환자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4세대 다빈치 SP는 집도의의 피로를 줄여 하루에 더 많은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환자가 최상의 진료와 결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봇수술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정교하고 안전한 치료가 제공될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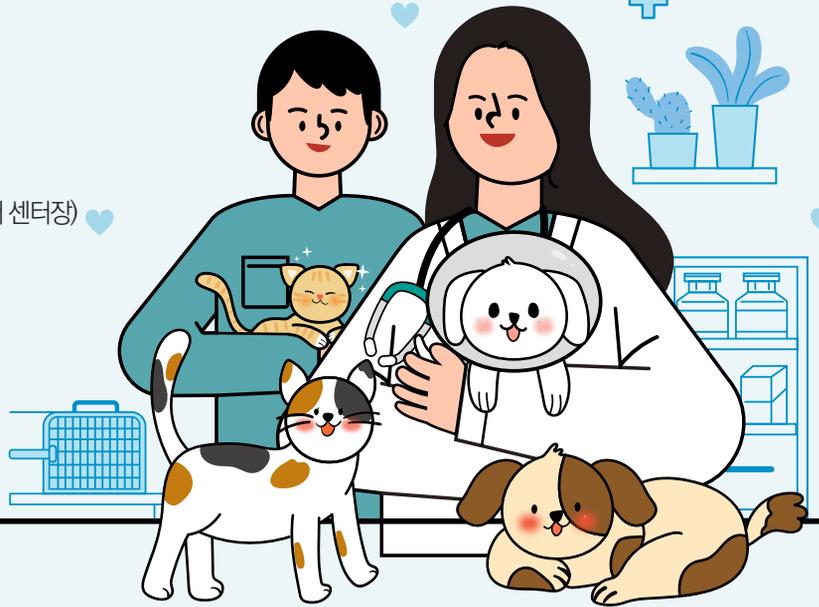


**강수환** 교수 | 비뇨의학과  
**전문진료분야** | 로봇수술, 비뇨기암, 결석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 반려동물 알레르기, 원인부터 해결까지

글 | 김희규 교수 □ 알레르기내과(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센터장)



## "펫팸족(Pet-Fam)'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펫팸족’은 펫과 패밀리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만 제공하는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반려동물 유치원, 놀이터가 생겨나고 명품 반려동물 의류, 고급 유기농 사료 등이 판매되는 등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펫팸족(Pet-Fam)’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지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은 28.2%입니다. 이는 약 3.5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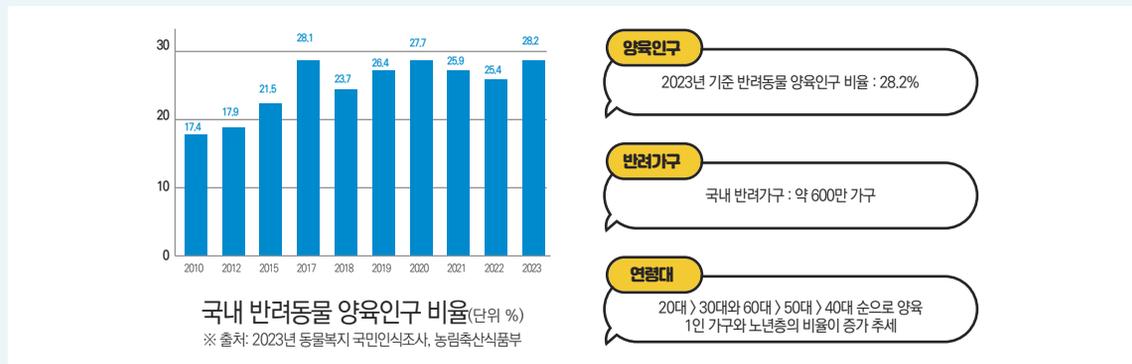


그림 1. 국내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 및 관련 통계

## "눈 가려움과 재채기,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방해한다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동물 알레르기입니다. 반려동물과 접촉했을 때 피부나 눈이 가렵고, 콧물이 흐르며, 재채기가 반복된다면 동물 알레르기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그림 2) 미국 천식 및 알레르기 협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천식,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사람의 약 30%가 반려동물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2024년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서 부산광역시 시민 약 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려동물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털이 있는 동물과의 접촉 후 알레르기 증상(콧물, 재채기, 눈 가려움, 피부 가려움, 호흡곤란 등)을 경험한 비율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룹에서 23%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그룹의 16.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 접촉 관련 알레르기 유경험자에서 증상별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 ① 비결막염 증상(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 가려움, 눈 가려움 등): 거의 대부분
- ② 피부 증상(피부 가려움, 발진 등): 약 33%
- ③ 호흡기 증상(호흡곤란, 쌉쌉거림, 기침 등): 약 25%
- ④ 전신 알레르기 증상(비결막염, 피부, 호흡기 증상 중 2가지 이상 또는 어지러움, 쇼크 등): 약 17%



그림 2. 동물 알레르기 증상

## "혹시 지금, 당신의 눈과 코도 알레르기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는 알레르기로 고생하면서도 알레르기 증상을 관리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반려동물 알레르기는 더 이상 일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개나 고양이의 털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털 자체보다는 동물에게서 분비되는 특정 단백질이 주된 원인입니다. 대표적으로 개는 Can f 1, 고양이는 Fel d 1이라는 알레르기 항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알레르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Can f 1은 주로 개의 타액, 피지선, 피부, 털에서 발견되며, Fel d 1은 주로 고양이의 피지샘과 침샘에서 생성됩니다. 이 성분들은 피지선, 타액, 배설물 등에 모두 분포해 있습니다. Fel d 1의 경우, 고양이가 그루밍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성분이 털에

문고, 공중에 날리는 털이 사람의 코나 입, 눈에 닿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림 3)

반려동물 알레르기의 정확한 원인은 Can f 1, Fel d 1 등 단백질 성분이며, 이를 운반하는 수단으로 동물 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실내는 물론, 반려동물이 잠시 있던 공간이나 심할 경우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한 공간에 있기만 해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림 3. 고양이 그루밍 (출처: 비마이펫)

###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원인을 알아보자."

알레르기의 원인은 반려동물 외에도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식품, 약물 등 다양합니다. 알레르기 증상의 원인이 반려동물 인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 알레르기는 병력 청취 및 신체 진찰, 피부 시험, 혈액검사, 동반 알레르기 질환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보통 피부단자검사와 알레르기 항체 검사를 많이 시행합니다. '피부단자검사'는 피부 표피에 알레르기 항원을 주입해 검사 부위에 부어오른 정도(뺨진)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발적의 크기를 측정하여 원인이 될 수 있는 항원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보통은 검사 시행 15~20분 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알레르기 항원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습니다. 단,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피부염이 심한 경우에는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중 알레르기 항원 검사'(MAST)는 혈액 내에 존재하는 특정 알레르기 항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방법이 안전하고, 항알레르기약(예: 항히스타민제)을 복용하거나 피부염이 심한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 확인에 일반적으로 2-3일이 소요되며, 피부단자검사보다는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검사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검사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림 4. 동물 알레르기의 진단 방법

## "동물 항원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에도 불구하고 알레르기 반응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활에서 반려동물 알레르기 증상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 반려동물을 쓰다듬거나 접촉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특히 반려동물과의 입맞춤은 동물의 타액 속 단백질이 점막을 통해 체내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으니 가능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❷ 동물이 주로 지내는 공간과 침실을 분리합니다.
- ❸ 집 안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환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공기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하고, 반려동물이 지나가는 경로는 진공청소기로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 ❹ 정기적으로 목욕과 빗질을 합니다. 목욕 빈도는 반려동물의 종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접촉 시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은 병원을 방문해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항히스타민제, 비강 스테로이드 분무제, 류코트리엔 수용체 길항제(천식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약물), 흡입기 등이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급성으로 악화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전신 스테로이드제(경구 또는 주사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 관리와 약물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면역요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면역요법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점진적으로 노출시켜 내성을 키우는 치료법입니다.

알레르기는 무엇보다 자신의 주치의의 두고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를 받는 것이 질환의 악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반려동물 알레르기는 철저한 관리와 예방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이라면, 먼저 단기간 임시 보호(임보)와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

일반인에게 유용하고 검증된 알레르기 정보는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홈페이지 [allergyinfo.or.kr](http://allergyinfo.or.kr), 전화 1899-4640)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 김희규 교수 | 알레르기내과

**전문진료분야** | 만성기침, 기관지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식품알레르기, 급만성 두드러기, 혈관부종, 접촉성 피부염, 약물 알레르기, 호산구증가증, 각종 알레르기 질환, 면역결핍질환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외래	
오후	외래			외래	

새로운 비만 치료제 이야기 2

# 당뇨병 치료제에서 비만 치료제로

글 | 김부경 교수 · 내분비내과



최근 국내에 새로운 비만 치료제가 판매 허가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라고 하는 이 약제는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GLP-1은 원래 정상적으로 우리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현재 당뇨병의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글에서 인크레틴이 무엇인지와 인크레틴의 발견에 대한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 글에서는 인크레틴 중에서도 GLP-1이라는 물질이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어 `비만 치료제로 발전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엑세나타이드(Exenatide)의 발견

엑세나타이드는 최초로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GLP-1 유사체입니다. 이 약제는 길라몬스터(Gila monster)라는 미국 도마뱀의 침에서 발견된 exendin-4라는 단백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992년 존 박사가 exendin-4의 혈당 조절 효과를 발견하면서 아밀린(Amylin Pharmaceuticals)이라는 제약회사가 이를 기반으로 한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였습니다. 결국 2005년 당뇨병 치료제로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고, 상품명 바이에타

(Byetta)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뇨병 치료제로 출시되어 사용되었으나, 하루에 두 번 자가 주사를 맞아야 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구토를 하는 부작용이 있어 널리 사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작용이 훗날 이 계열의 약제가 비만 치료제로서 더 큰 자리매김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 리라글루타이드(Liraglutide)의 개발

1990년대에 이르러 인슐린 회사로 유명한 노보(Novo Nordisk)라는 회사에서 인간 GLP-1을 기반으로 반감기를 연장한 약물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서 나온 엑세나타이드는 반감기가 짧아 1일 2회 투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산을 부착한 인간 GLP-1 유사체인 리라글루타이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LEAD(Liraglutide Effect and Action in Diabetes)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당뇨병 치료제로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유럽 EMA와 미국 FDA에서 1일 1회 주사제 빅토자(Victoza)가 2형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 **당뇨병 치료제에서 비만 치료제로** ●

사실 당뇨병 치료제로서의 GLP-1은 생각보다 시장에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환자들은 약제의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더 크게 느꼈고,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것에 큰 장벽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아직 당뇨병이 없는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리라글루타이드를 3.0mg까지 사용해서 체중 감량 효과를 본 SCALE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12월 FDA는 리라글루타이드를 비만 치료제로 승인하게 됩니다. 이 약이 바로 그 유명한 삭센다(Saxenda)입니다.

흥미롭게도 GLP-1이 당뇨병 치료제로 쓰일 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 치료제인데, 살도 빠진다’고 할 때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비만 치료제인데 당뇨병 예방과 치료도 된다’고 하니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품질 대란까지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비만 치료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이후에 개발되는 모든 비만 치료제는 다 GLP-1을 기반으로 한 약제들입니다.

● **인크레틴 기반 비만치료제의 장점** ●

GLP-1을 기반으로 한 비만 치료제가 이토록 각광을 받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 때문입니다. 기존의 비만 치료제들은 위약군에 비하여 추가 체중 감량 효과가 3-5kg 정도였습니

다. 그런데 삭센다의 경우 SCALE 연구에서 위약군에 비하여 추가 체중 감량 효과가 8.4kg 있었고, 5% 이상 체중 감량에 도달한 환자가 63.2%에 달하였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최근에 나온 약제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 계열의 약제들은 장기간 사용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최근 내과 의사들이 이 약제를 적극적으로 처방하게 된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전의 비만 치료제들은 대부분 항정신성 의약품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인크레틴 기반의 약제들은 이전에 소개했듯이 원래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장호르몬이며, 처음에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7년 당뇨병 치료제 중 로지글리타존이라는 약제의 심혈관계 안전성 이슈가 발생한 이후, FDA는 모든 항당뇨병 약제는 심혈관계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리라글루타이드는 2016년 LEADER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심혈관 질환 안전성을 넘어 오히려 심혈관 질환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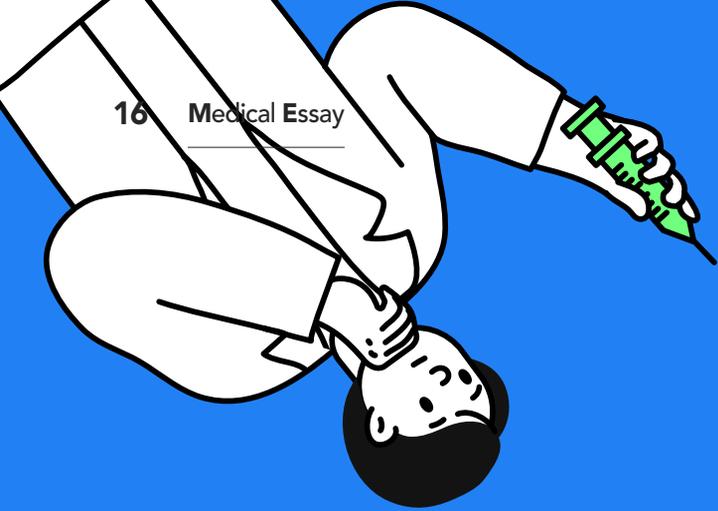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2010년 시부트라민이라는 약제가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을 이유로 갑자기 사용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식욕 억제제를 기반으로 한 모든 비만 약제들은 중단하면 비로소 체중 재증가 위험이 있으므로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GLP-1의 이런 장기간 사용에 대한 안전성과 심혈관 질환에 대한 이점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이후에 출시되는 모든 비만 약제들이 GLP-1을 기반으로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



**김부경** 교수 | 내분비내과  
**전문진료분야** | 비만,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뇌하수체, 부신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오후	외래		외래		시술



## 수술 후 흉터 관리

글 | 이형석 교수 · 성형외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수술은 흉터를 남긴다.”

우리나라의 익숙한 속담을 조금 변형해 보았습니다. 골절된 부위를 고정하거나 종양을 절제하려면 우리의 1차 방어막인 피부를 절개해야 합니다. 수술을 진행하는 의사나 환자 모두 흉터가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술에 임하지만, 흉터는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 후 흉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용 내시경 등의 발달과 최근 널리 사용되는 로봇수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술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수술에도 어느 정도의 절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모든 수술에서 흉터 발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가피한 수술 후 흉터의 원인과 분류를 살펴보고, 흉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흉터를 줄여주는 치료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지혈기, 염증기, 증식기, 성숙기라는 네 단계의 과정을 통해 상처는 안정화되고 피부의 방어막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처 치유에 필요한 기본적인 3대 요소는 적절한 혈액 공급, 적절한 수분 공급, 적절한 감염 조절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상처 치유가 지연되고, 원치 않는 흉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흉터는 수술부위가 함몰되어 보이는 함몰흉터와 수술부위과 튀어나와 보이는 돌출흉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튀어나와 보이는 돌출흉터가 대부분인데, 이는 다시 비후성반흔과 켈로이드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출흉터를 켈로이드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두 흉터는 발생 원인과 조직학적 특성이 다르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흉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수술 부위를 넘어서 흉터가 넓게 형성되었는지, 아니면 수술 부위에 국한되어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림 1. 비후성반흔(좌), 켈로이드(우)

왼쪽 사진처럼 수술 부위에 국한된 형태로 발생한 흉터는 비후성반흔이고, 오른쪽 사진처럼 흉터가 수술 부위를 넘어서 넓게 퍼진 형태는 켈로이드입니다. 두 흉터는 돌출되며 주변보다 짙은 색을 띠고, 치료 방법은 비슷하지만 예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비후성반흔은 적극적인 치료 후 재발률이 10-20%인 반면, 켈로이드는 재발률이 40-60%로 훨씬 높은 편입니다.

환자 분들은 흉터 치료 전 이러한 차이를 알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흉터는 호발하는 부위가 있는데, 비후성반흔의 경우 팔꿈치나 무릎과 같이 굽혀지는 부위에서 자주 발생하고, 켈로이드는 앞가슴, 어깨, 하복부, 귓볼 등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이러한 부위적 차이 외에도 비후성반흔에 비하여 켈로이드는 유전적인 성향이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흉터 발생을 예방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상처 치유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술 부위에 수직 방향으로 테이프를 고정하거나, 실리콘 흉터관리 제품(흉터 연고, 흉터 시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나 흉터 레이저 치료도 예방적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리콘 흉터관리 제품은 가장 사용이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리콘 흉

터 관리 제품은 연고형과 시트형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두 가지 형태의 효과에 차이는 없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흉터 관리 제품이 24시간 동안 흉터 부위에 접촉하여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정도 꾸준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술 부위에 감염이 없고 실밥을 제거한 상태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편리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하면 됩니다.

흉터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흉터가 발생한 경우, 흉터를 줄여주는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실리콘 흉터관리 제품,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 흉터 레이저 치료는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적인 방법으로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흉터 제거 수술은 발생한 흉터를 절제하고, 과도한 피부 긴장과 같은 원인 제거를 동시에 함으로써 흉터를 줄이고 재발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림 2. 귓바퀴에 발생한 켈로이드(좌), 수술 후(우)

흉터가 자주 재발하는 경우나 유전적으로 흉터가 잘 발생하는 환자는 수술 후 실리콘 흉터 관리 제품과 흉터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흉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함몰되거나 튀어나오는 흉터 외에도, 수술 부위가 짙은 착색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최소 6개월간 자외선 차단이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환자 분들께서는 흉터 관리 방법을 잘 숙지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흉터 상담을 원하시면 성형외과 외래를 방문하여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교수 | 성형외과

**전문진료분야** | 당뇨발, 욕창, 피부암, 눈성형, 두경부재건, 소아성형, 유방재건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 희 원

글 | 김희자 수필가

흙 마을은 고요한 어둠 속에 잠겨 있다. 바지런한 어머니는 아직 기척이 없다. 산책하러 나가려고 바스락거리니 반려견이 꼬리를 흔들며 마루로 뛰어나온다. 눈치 빠른 녀석이 따라나설 태세다. 운동화를 신으니 덤석 내 품에 안긴다. 저도 아침 공기 맛을 아는가 보다. 대문을 나와 바다가 보이는 들로 내려섰다.

그 사이, 연분홍 아침노을이 수평선 위에 차렷이불처럼 깔려 있다. 해풍에 잠이 깨는 들녘. 바다에 동살이 퍼지며 육조문에 가장 먼저 햇살이 든다. 여섯 부처의 얼굴을 닮았다는 응봉산 자락에 햇살이 퍼지면, 다랭이마을 사람들의 하루가 열린다. 동이 트면 농부의 손길이 가장 분주하다.

바다로 가는 골목 끝에서 소열 삼촌을 만났다. 창고에서 파 자루를 꺼내 시던 삼촌이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신다.

“벌써 일어났는가?”

“네, 파 씨 심으려고요?”

“어이, 저 아래 논배미에 쪽파 심으려고.”

들길 따라 발걸음을 옮기니, 뒤에서 머리에 수건을 두른 소열 삼촌의 부인이 종종거리며 내려오신다. 부부가 바닷가 다랭이논에 파를 심으려는 모양이다. 팔순이 넘은 부부는 노련한 걸음으로 나를 추월해 작은 논배미로 들어가신다. 그 뒷논에서 대천 삼촌이 땅을 파 흙을 일구고 계신다. 곧 시금치를 파종하려는가 보다. 벌써 일하러 나오셨냐며 허리 숙여 인사하자, 삼촌은 환하게 웃으며 산책 나왔느냐고 말씀하신다.

고향에 들어온 후 한동안 분주했다. 집 정리와 수리로 며칠이 후딱 지나갔다. 사십여 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나 역시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다. 한 동안 엄두조차 못 내다가 오늘은 큰마음 먹고 들로 나왔다,

암수바위가 있는 풍경 너머로 분홍빛을 띤 나무가 서 있다. 무슨 나무이지? 눈이 휘둥그레진 나는 나무 옆으로 다가갔다. 자세히 살펴보니 철을 잊은 벚꽃이 피어있다. 구월 초에 벚꽃이라니. 분홍빛이 하도 고와 다시 훑어보니 벚꽃이 맞다. 의아해하는 내게 대천 삼촌은 봄부터 가물어 잎이

저버리더니 지금이 봄인 줄 아나 보다며 헛웃음을 치셨다. 팔 십 가깝게 이곳에서 살았지만, 한해에 벚꽃이 두 번 피는 건 처음 본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가물고 극한 무더위 탓일까. 제철도 아닌데 꽃이 피다니. 나 또한 믿기지 않아 고개를 내저었다.

대천 삼촌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다. 말수가 적은 듯해도 꽤 실속 있는 어른이다. 터의 위치가 좋기도 하지만, 토지 또한 오지다. 서둘러 시금치 종자를 뿌려서 남들은 한 번 재배하는 시금치를 두 번 수확하여 여행객에게 팔거나 농협에 출하한다. 이상 기후로 변해가는 계절 앞에서도 영명하게 흙을 일구어 터를 지키는 분이다.

다랭이마을에서는 부지런만 하면 먹고살 수 있다고들 한다. 거짓말하지 않는 흙이라 바지런한 사람에게는 풍요로운 결실을 안겨준다. 사시사철 마을을 찾는 여행객이 있으니, 농작물을 팔 수 있는 경로가 매양 열려 있다. 호미처럼 등 굽은 할머니도 봄이면 들로 나가 캔 썩이나 나물을 팔고, 아낙들은 논과 밭에서 정성 들여 키운 농작물을 마을 어디에서나 놓고 팔 수 있다. 이곳 흙에서 자란 농작물은 해풍을 맞고 커서 맛나다고 소문났다. 특히, 겨울에 재배한 시금치는 어느 곳에서 자란 것보다 달달하여 인기가 높다.

농로를 내려서며 시선을 아래로 두니 층층 논둑 너머로 수평선이 펼쳐져 있다. 아득한 바다 위에 섬 하나가 떠 있다. 멋진 배경이다. 순간, 노부부의 일하는 모습과 풍경이 어우러진다. 소열 삼촌은 팽이로 고랑을 파고, 숙모는 고랑 따라 쪽파를 파종하고 있다. 소박하고 부지런한 노부부. 일하는 그들이 힘 들어 보이지 않고 마냥 행복해 보인다.

한 평이라도 터를 넓히기 위해 고단하게 살아왔던 세월. 줄 줄 달린 자식 키우며 치열하게 살았던 때와는 달리 여유로워진 모습이다. 젊을 땐 아들 셋을 키우기 위해 죽자 살자 살았지

만, 이제는 일하는 모습도 무르익었다. 그들의 모습 뒤로 서포 선생님의 유배지였던 노도가 보이고, 항구로 향하는 유조선도 떠 있다.

소열 삼촌은 평생 흙에서 살아왔다. 마을의 진정한 일꾼이었으며 터를 지켜온 사람이다. 젊은 날엔 마을 일을 도맡아 했다. 좋은 일,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다랭이마을에 없어선 안 되는 소와도 함께한 분이였다.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일소와 함께한, 흙을 만지며 평생 살아오신 분이다. 힘들게 농사를 지어봤기에 아들이 셋이나 있었지만, 지게 한 번 지우지 않았던 아버지였다.

흙에서 자라고, 터를 일구는 어른들 앞에서 산책을 즐기는 내가 쑥스럽다. 생각의 깊이가 더해지는 사이, 동쪽 바다 끝이 불그스레하게 물든다. 노도가 있는 동쪽 바다에서 시작한 해의 자리 길은 터를 지키는 사람들의 때를 가능하게 하는 시간이다. 해를 가능하여 아침을 먹고 마을 사람들은 하루 채비를 서두른다. 해가 뜨면 바다는 온통 황금빛으로 물이 들고, 다랭이마을 사람들은 매일 논밭으로 나간다. 농부는 흙을 멀리 할 수 없다. 정성으로 비옥한 흙을 가꾸고, 땀으로 생명의 씨를 뿌려 거두어들인다. 진정한 농부는 거친 땅을 탓하지 않으며 흙의 소중함을 안다.

노도 옆 바다에 햇살이 퍼진다. 노부부가 다랭이논에 파를 심고, 대천 삼촌이 흙을 일구는 동안 구름 속에 있던 해가 얼굴을 썩 내밀며 대지에 빛을 뿜는다. 잠들었던 대지가 깨어나고 세상이 눈부시다. 대지의 흙은 세상을 눈부시게 만드는 생명의 기운이 있다. 험한 땅, 흙에서 생명의 기운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위대하다. 그들이 만드는 삶보다 더한 풍경은 세상 어디에도 없으리라. ♣

# 하나의 팀으로 부르신 하나님

글 | 이형신 교수 · 이비인후감상선두경부외과

필리핀 투게가라오 땅을 밟는 것은 2019년 1월 이후 6년 만입니다. 이제 네 번째 방문이지만 매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 선교팀과 공유한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의정 갈등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대학병원에서의 중증 수술과 연구를 보람으로 여기며 달려오던 의대 교수로서의 삶이 지속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정체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요즘,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료 선교에서는 우리 선교팀 구성원들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변함없이 도전을 주시는 선교사님의 주일 예배 말씀과 현지 교회 성도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우리가 해야 할 일들보다는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이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병원 인턴 지원자 면접을 마친 후 30명이 넘는 1진보다 하루 늦게 합류한 2진은 6명으로 구성된 작은 팀이었습니다. 어쩌면 1진과 함께 출발하지 못한 우리 6명은 각자 자기만의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가 이번 선교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밤새 들어도 부족한 스토리들이었고, 그 다양한 시간의 모습만큼 우리는 각자 조금은 다른 마음가짐과 기대로 이 선교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라쿤에서 시작한 2진의 사역은 오경승 전 병원장님과 마산제일교회 이지현 집사님 팀 5명이 합류하면서 힘을 얻어, 소수 정예 멤버지만 각자의 달란트대로 업무를 나누어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역을 분담하며 애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선교 현장이 마치 각자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에 '예'라고 대답하며 순종하는 삶의 축소판처럼 보였습니다.

1진과 합류한 3일차 이후, 더욱 다채로운 사역들이 펼쳐졌습니다. 작은 교회당 안에서 진료와 투약뿐 아니라, 초음파와 엑스레이 검사, 그리고 수술실까지 여러 섬김의 손들을 통해 우리가 준비한 의료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교회당 다른 한쪽에서는 자궁경부암 조기 검진이 이루어졌고, 동네 아이들을 위한 각종 어린이 사역도 진행되었습니다. 흐릿해진 투게타라오 선교센터의 담벼락은 귀한 재능의 손길로 아름다운 에텐 동산으로 회복되었고,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머니의 눈길로 살펴보며 기도해 주시고 보듬어 주신 섬김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검사한 자궁경부 슬라이드를 국내 병리학 교수님이 판독할 수 있도록 원격 조종 현미경을 준비한 엔지니어의 손길까지, 그 누구도 머물러 있는 사람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머리 수만큼 다양한 삶의 여정과 기도 제목을 가진 우리 '투게타라오' 팀이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협력하여 복음의 사역을 담당하는 모습은 그 어느 단기 선교보다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전심으로 섬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섬김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나의 곁에 있으니 함께 협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라는 것, 투게타라오에서 우리 팀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와 내가 속한 우리 팀을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

# 봄이 오는가보다…… 창원 김해 불모산

글 | 노경만 산 · 여행작가





▲ 뒤돌아본 장복산으로 이어지는 능선 풍경

불모산(801m)은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과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걸쳐 있어 창원과 김해의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진해 쪽으로는 웅산-시루봉과 연결되며, 안민고개를 지나 장복산으로 이어지는 긴 능선을 드리우고 있다. 북쪽 또는 장유 쪽으로는 용지봉과 이어지고, 장유폭포가 흐르는 대청계곡을 품고 있다. 옛 이름은 부을무산이라고 하며(세종실록지리지), <부을>은 서쪽 <무>는 산을 뜻한다고 한다. 다른 유래로는 일곱 번째 아들을 출가시킨 금관가야의 허황후로부터 비롯됐다는 설도 있다.

창원시에서는 <1코스> 안민고개-웅산갈림길-불모산-상점령-불모산저수지, <2코스> 유니온빌리지-상점령-불모산-불모산저수지갈림길-성주사주차장 2가지의 등산로를 소개하고 있다(창원시청 홈페이지). 그 외에도 진해의 대발령에서 시작하는 <시루봉누리길>을 따라 천자봉과 시루봉과 웅산을 거쳐 오는 길과, 장유 대청계곡에서 상점령을 거쳐 오르는 길도 있다.

## 다시 안민고개로……

입춘이 지났지만, 봄소식은 요원하다. 남녘도시에서는 드물게 한파가 며칠 내내 기승을 부리





▲ 능선을 오르다 바라본 불모산



▲ 불모산 노을전망대와 정상 조망길

기도 하고, 더 드물게 함박눈이 내리기도 했다. 소문으로는 불모산에도 마치 폭설처럼 눈이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추위가 잠시 수그러진 날 어찌면 꽃소식을 따라왔을지도 모를 봄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과 함께 더 따뜻한 도시 진해로 갔다. 그리고 불모산행을 위하여 다시 안민고개로 길을 잡는다.

유난히 길고 시리게 느껴졌던 겨울 탓일까? 진해남중학교 정류장에서 버스를 내려 안민고개로 오르는 길에도 봄은 감감 무소식이다. 수년전 이맘때 웅산을 향하던 길에 만발해 있던 매화도 보이지 않는다. 내리쬐는 햇빛에서 혹은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더러 훈훈함이 느껴질 뿐, 멀지 않은 날에 만개하여 벚꽃터널을 이룰 안민고개길 도로 위 벚꽃나무도 아직은 앙상하다. 봄은 언제 올까?

옛날 창원으로 시집간 이들이 명절 사흘째 되는 날에 고갯마루에서 가족들을 만난 데서 유래하여 만날재로 불렸다는 안민고개. 그래도 만남전망대에서 진해 앞바다 위로 반짝이는 햇살과 만나고, 창원에서 올라온 기대감과 만나 함께 산행을 시작하니 따스함이 스며온다. 겨울이 끝나고 있나보다. 정말 봄이 오는가보다…….

## 노을전망대에서

안민고개에서 웅산으로 이어진 긴 능선의 길은 봄이면 그 자체가 축복이다. 봄날이 깊어지면 이 오름길에선 벚꽃과 진달래의 향연이 펼쳐진다. 윤슬이 일렁이는 황금빛 혹은 파랑의 바다 빛과 어울려 약 4.25킬로미터 2시간여 동안의 오르막 산행 자체가 축제의 절정이 되기에 충분하다. 꽃과 해와 바람과 함께하는 긴 오름길이니 자주 쉬어가면서 걷기를 권한다. 그러면 그때마다 드넓은 바다의 풍경과, 불모산-웅산-시루봉-천자봉으로 이어지는 산 그림과, 창원공단 너머 용지봉-대암산-정병산-천주산-무학산의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걷다가 뒤돌아볼 때마다 장복산으로 이어진 긴 능선이 점점 희미해져간다. 봄색이 짙어지는 만큼 점점 미세먼지가 짙어져 능선은 안개 속으로 모습을 감추는 용의 몸짓을 닮아간다.



▲ 능선을 오르다 바라본 불모산

갈림길에 도착하면 바로 위가 웅산 정상이니 들어서 인증사진을 남길 수 있다. 불모산까지 남은 길은 1.3km로 길지 않은 내리막길을 지나 다시 오르막을 오르면 된다. 햇살이 들지 않는 응달엔 아직도 잔설이 얼어있다. 조심스럽게 KBS방송국 시설물 방향으로 오르면 노을전망대가 있는 정상에 도착한다. 그곳엔 따뜻한 햇살이 억수같이 쏟아지고, 저물녘이면 진해 바다로 떨어지는 아름다운 노을 풍경을 눈앞 거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더불어 성큼 다가온 봄의 기운을 반갑게 만날 수도 있다. 이른 아침이라면 바다에서 막 솟아오른 붉은 태양을 맞이할 수도 있을 터…….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 이어진 산 정상을 빙 둘러가는 조망길을 걸으며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한 후, 정자를 지나면 주차장에 도착한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창원시에서 소개한대로 정자 앞에서 불모산누리길로 성주사를 향할 수도 있고, 상점령을 지나 용지봉 방향으로 이어 갈수도 있다. 장유 방향으로로는 작전도로를 따라 상점령과 불모산터널 위를 지나 대청계곡입구로 내려갈 수 있다. 반대로 이 도로를 따라 차를 타고 불모산 정상에 도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



## 독자 에세이 #01

# 내 마음 사랑의 온도 100°C를 전해드리며, 사랑합니다

글 | 김영옥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병원보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몸과 마음을 위로 받고 치유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원고가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접수방법 | [pr3700@daum.net](mailto:pr3700@daum.net) 으로 기고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남편 직장 파견근무로 인해 23년간의 해외 생활을 접고 5년 전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 생활에 차츰 적응되어 갈 즈음, 건강검진을 통해 위선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고신대복음병원으로 영상CD와 진단서류를 들고 입원했다.

박선자 교수님의 “암일 수도 있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고, 큰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어서인지 불편한 것도 없었다. 일주일 후 외래에서 위암이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다행히 일찍 발견한 것 또한 감사하다며 위로해주는 교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지, 말 잘 통하는 우리나라에서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암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원망스러웠다.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면서 흘린 눈물은 결과가 좋다는 교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발걸음이 가벼웠다. 매번 조영제가 몸속에 들어가는 CT 촬영은 정말 힘든 검사였다. 5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홀수 해의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라는 문자를 받고, 12월 마지막 주에 타 병원 건강검진에서 유방에 석회화가 발견되었다. 다시 고신대복음병원 유방외과를 찾아 초음파 및 재검진을 한 결과 유방암 진단이 나왔다. 두 번째 암이었다. 앞이 안 보였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 중이었는데 입원과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에 2월 수료를 앞둔 우리 반 아이들 걱정이 앞섰다. 위암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라 병원에선 서둘러 위내시경을 했다. 병력이 있으면 수술할 때 위험할 수 있음을 감안하고 정밀검사를 받도록 안내받았다.

다행히 다른 과에서는 염려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24년 1월 29일 입원해 7~8시간동안 왼쪽 가슴 전절제술을 하고, 성형외과의 유방재건 수술까지 마쳤다. 드라마에서나 봤던 7~8시간 수술의 주인공이 내가 되었다. 수술 후 새벽마다 예뻐당구석에 앉아서 새벽기도를 드렸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지 감사...” 음원을 틀어놓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제발 항암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꼬박 20일을 새벽마다 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안 해도 된다는 교수

님의 설명에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게 느껴졌다.

내 안의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다 잘 될 거라고 속삭여주시는 분이셨고, 털 끝 하나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시며 위로해주신 하나님이심에 또 한 번 감사했다. 돌이켜 보니 참 감사하다. 입원한 날부터 왼쪽 가슴에 그림을 그리고 수술하기 위한 사진을 찍고, 정확한 수술을 위해 재확인하면서 세심하게 배려해주신 성형외과 김운수 교수님, 성형외과 문턱을 들어설 때부터 울고 있는 나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울어주신 한주 선생님.

교수님만 쳐다보면 눈물이 왜 그리 나는지... “괜찮아요, 걱정하지마세요.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고 계시면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위로해주시며 재건한 가슴의 모양이 틀어지지 않도록 마사지를 할 때마다 “착하다, 착하다. 잘했다.”라고 칭찬하며 마사지를 하도록 권유하셨다. 나도 모르게 가슴을 어루만지며 내 입가에선 나를, 만들어진 나의 가슴을 생각하며 ‘착하다’를 주문처럼 외워대기 시작했다.

퇴원 7개월 후 유방암에 대한 1차 추적검사 결과에서 다시 유두에 암이 생겨 “국소적 재발”이라는 결과를 듣고 또 한 번 앞이 캄캄했다. 위암에 이어 유방암, 그리고 남겨놓은 유두에 또 다시 암이라니... 10월 18일 수술날짜가 잡히고 입원일이 가까워지자 일시적인 섬망 증상을 보였다. 열 손가락 끝이 바늘로 찌르듯 아프더니 집 안의 물건들 위치가 며칠 전 기억으로 떠오르는 증상이었다. 병원에서는 일시적인 스트레스 증상이라고 말했지만 무섭고 떨렸다. 입원하기 위해 집을 나서면서 ‘내가 살아서 우리 집 가구, 그릇들, 손 때 묻은 물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니 살고 싶다는 생각이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유두를 떼어내고 나온 수술 결과는 “상피내암”이었다. “상피내암 0기라 항암은 안 해도 되는데, 방사선은 합시다” 말씀하시는 교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나에게 암이 4번째, 상피내암? 부끄러우면서 무서웠다.

“영육씨?! 괜찮다. 방사선 합시다. 그래서 이번엔 깨끗하게

나읍시다.” 정성의 교수님만의 특유의 목소리, 귀여운 억양, 정감 어린 말투에 또 한 번 울컥하고 조용히 등을 어루만지며 위로해주는 교수님의 뒷모습이 너무 평온하여 괜찮을 거라는 위로가 몰렸다.

32일간의 입원과 퇴원, 다시 30회의 방사선치료를 위해 입원을 했다. 두려움과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오기로 변하고, 견뎌내야만 하는 방사선은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다. 방사선실의 희미한 조명과 상의를 벗고 유방을 드러내놓고 치료해야 한다는 부끄러움은 ‘나는 환자야’라는 마음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방사선실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친절함이 몸과 마음으로 느껴져 “내일은 퇴원하는데 일찍 호출해 주세요~” 하는 익숙한 부탁도 하게 되고, 방사선에 대한 두려움이 살 수 있다는 설렘으로 변했다.

환자가 부끄러워할까봐 치료 후, 병원용 수건을 살짝 가슴 위에 덮어주는 방사선실 손성옥 선생님과 다른 2분의 남자 선생님 또한 세심한 배려와 친절이 너무 감사해서 방사선실 가는 날은 즐겁고 행복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사선 박경란 교수님을 만나는 날엔 “수치도 괜찮고, 치료받을 때의 위치도 좋고,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또박또박 알아듣기 쉽게 주의할 점까지 덧붙여 설명해주는 한마디에 또 한 번 울컥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던가? 교수님의 칭찬과 치료 결과에 대한 설명은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에 몇 백 배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가끔은, 오른팔에 수액을 꽂고 있을 때마다 슬픔이 몰려와 수액 폴대를 끌고 병원 주차장으로 산책을 나갔다. 한 발자국 땀 때마다 흐르는 눈물을 마스크로 감추고 세찬 송도 바닷바람을 머플러로 감싸며 빛나무아래 노란 벤치에 앉아 있을 때면 우울함이 다소 수그러들었다.

나만 겪는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면서 병실로 들어서면 트레이 들고 주사바늘을 뽑아주면서 “잘 견디셔서 너무 멋지세요”라며 칭찬해주는 간호사 선생님의 또 한 번의 위로에 울컥! 두 손 잡아주고 살며시 안아줄 때면 서러움

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위로가 되곤 했다.

‘죽지 않고 살았구나, 역시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구나’ 생각이 들 때마다 나도 뭔가 교수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기뻐할 거리를 위해 병동에 성탄 장식과 복주머니를 만들어 달았다.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그 손길에 복이 넘쳐나도록... 나의 기쁨은 곧 나의 치유라며 감사 편지를 쓰고, 루돌프 모양의 도안에 사랑을 넣고 간호사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사가 담긴 메시지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다.

선생님들은 힘이 나신다며 행복해했고, 죽을 것 같았던 나의 마음도 더불어 행복했다. 암이 4개라는 엄청난 현실은 슬펐지만 담당 교수님과 선생님들은 항상 환자가 우선이었다. 기침 소리 한 번에도 약을 처방하고, 손 등에 든 멍을 보고, 얼음 팩을 가져다주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행복했다. 아마도 내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앞으로 5년, 6개월마다 추적 정기검진이 있지만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 숨 쉬는 일상 속에 안주하며, 애쓰신 교수님들의 수고가 “완치”라는 빛으로 나에게 머물길 바라본다. 그래서 오늘도 집 앞 백양산을 오르며 내가 암이 4개라는 현실을 몸으로 받아들이고, 어제보다는, 내일보다는, 오늘의 생활에 행복과 감사를 느끼며 살고 싶다. 공휴일도 반납하시고 치료해주시던 김윤수 교수님, 다정다감하게 위로해주는 정성의 교수님,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며 완치를 기도해주시겠다는 방사선실 성옥 선생님, 342병동 스무 명의 따스한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시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꽃망울을 선보이며 따스한 봄을 알려주겠지.

서른 번의 방사선을 잘 이겨냈고, 완치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추운 겨울을 보내면 나의 몸과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오겠지. 병원 산책길 어딘가에 꽃망울을 터뜨릴 하얀 목련과 더불어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며, 친절과 사랑이 몸에 베인 담당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에게 내 마음의 사랑의 온도 100도를 전해드리며, 사랑합니다 아주 많아요...라고 살짝 고백해본다, 이 아침에... 



원무부  
최 나 영

 고신대학교복음병원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New face**  
처음의 열정으로 고신에서 꿈을 펼치다

안녕하십니까. 24년 10월 1일부터 원무부에 근무 중인 최나영입니다. 환자들의 편안한 진료를 돕고, 병원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보람을 느끼지만,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게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 참 중요합니다.

병원에서의 하루는 항상 바쁩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안에서 보람도 찾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휠체어를 탄 할머니께서 제게 “밥은 먹었는지” 물어봐 주시고, 안 먹었으면 갈비탕이라도 사주려고 했다고 웃으시며, 나중에 가실 때는 하루 종일 말을 해서 목이 아플 것 같이라며 ‘스트랩실’을 주고 가셨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는 분들이 많기에 힘든 일도 금방 털어낼 수 있습니다.

회사 밖에서도 저는 반복적인 일상을 환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즐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원무과 특성상 조기 출근으로 근무 시간이 이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른 새벽 공기는 상쾌하지만 몸은 더욱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집 앞 고양이들과의 만남 덕분에 기대하며 집을 나섭니다. 저희 동네에는 길고양이들이 몇 마리 있습니다. 그중 한 마리인 삼색이와 아주 친합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저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아침에는 아파트 단지 출구까지 따라 걷기도 하고, 밤에는 꼬리를 세우고 다가와 몸을 비비며 인사를 건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피곤한 하루를 모두 잊게 만듭니다. 마치 “오늘도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아요. 주말에는 물이나 간식을 주면서 저를 반갑게 대해주는 보상을 줍니다. 오전 6시에도, 오후 6시에도 낮밤 상관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저를 맞아주는 모습이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하루의 쉼표 같은 시간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환자들, 고양이와의 소소한 교감. 이런 것들이 바쁜 일상에서 저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어줍니다. 쌓여 있던 긴장과 피로를 털어내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런 작은 행복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러한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여기며,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환자분들께는 한결같은 친절과 진심을, 그리고 동료들께는 신뢰받는 동료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배움을 놓지 않고 성장하며, 맡은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는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진단검사의학과 채혈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동신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 입사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점에서 꼭 입사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입사 후에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과 예배, 찬양 연습, 신앙 교육 등을 통해 복음병원을 더욱 깊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병동 채혈과 외래 채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는 이른 아침 병동 채혈로 시작됩니다. 입원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위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채혈을 진행한 후, 외래로 이동해 다양한 환자분들을 응대하며 채혈 업무를 이어갑니다. 처음에는 환자 한 분 한 분을 응대하는 것이 긴장되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능숙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채혈을 받는 순간, 환자분들은 짧지만 예민한 시간을 보내기에, 최대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혈을 비롯해 환자분의 다양한 요구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우고 개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는 주로 오늘 실수는 없었는지 걱정하며 동시에 내일은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피로로 인해 바로 잠들어버리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거나, 직접 요리를 해 먹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맛은 사 먹는 것이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피로를 맛있는 음식으로 풀면서 작은 행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입사 후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있다면 “감사합니다”인 것 같습니다. 선임 선생님들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을 때도 꾸짖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일주일의 저와 5개월이 지난 지금의 저를 비교해보면 이제야 조금 익숙해졌다고 느낍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금까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채혈실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는 채혈실 업무에 더욱 능숙해지고, 환자와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과 직업을 조화롭게 성장시키며 언젠가 후배들에게도 따뜻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환자와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ew face**  
처음의 열정으로 고신에서 꿈을 펼치다



**New face**  
 처음의 열정으로 고신에서 꿈을 펼치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 입사하여 원무과에서 근무 중인 서지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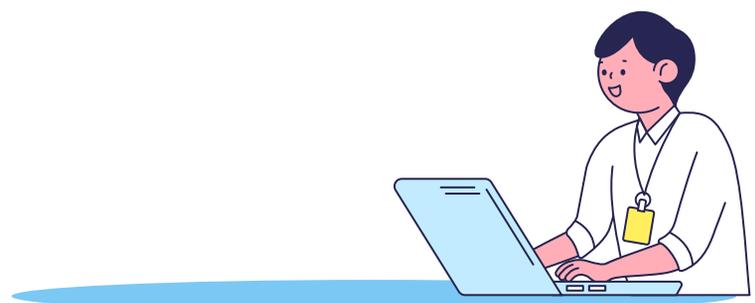
저는 매일 아침 병원을 들어설 때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만나게 될 한 분 한 분의 환자분들께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를 전해지기를, 그리고 제가 그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원무과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방문했을 때 가장 처음 마주하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픔과 걱정을 안고 찾아오시며, 때로는 불안에 떨거나 고통 속에 힘겨워하시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마다 저는 환자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야말로 제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순간은 진료와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저희 직원들의 친절이 더해져, 방문하는 환자분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질 때입니다. 그 작은 변화 속에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육체의 치료를 넘어 영혼의 위로까지 전해질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환자가 몰려 업무 처리가 바쁜 순간도 있지만, 환자 한 분 한 분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환자분들을 맞이합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환자분들의 미소가 저의 힘이 되듯, 제 작은 섬김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기도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 리 부 서 를 소 개 합 니 다

**대외협력홍보실**

**그것이  
알고 싶다**

**- 오해와 진실 -**



## **대외협력홍보실**을 아십니까?

사진 찍는 부서? 스티커 붙이는 데? 달려 주는 부서 아니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정말 다일까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일까요?

지금부터 우리 부서를 소개합니다.

## 홍보실? 대외협력실? 정확한 부서 이름은?

우리 부서는 홍보실, 대외협력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을 반영한 공식 명칭은 **대외협력홍보실**입니다. 우리 부서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  
부  
서

## 대외협력홍보실에서 하는 일

사진 촬영, 달력 배부 모두 대외협력홍보실에서 하는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외에도 대외협력홍보실에서는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저희 부서 업무를 하나씩 소개합니다!



### 대외협력

- 다양한 기관들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우리 병원과 공동체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힘 쓰고 있습니다.
- 발전기부금 관리, 후원자 예우 및 VIP 관리, 각종 대내외 행사의 기획/지원, 원내외 미디어(언론, 방송 등 각종 매체)의 의뢰진 섭외, 외부 민·관 기관과의 MOU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홍보

- 병원의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병원과 외부의 소통 창구로 역할하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병원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방송 출연 섭외 및 일정 조율, 각종 소식 및 홍보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SNS 관리, 영상 및 미디어 제작/관리, 병원보와 달력 등의 병원 출판물 발간, 기념품 제작의 업무도 대외협력홍보실 업무에 포함됩니다.



대외협력홍보실





### HI 및 병원 브랜드관리

- 원내 부착물 관리, 현수막, 브로슈어, 리플릿 등 각종 인쇄홍보물의 디자인 관리를 통해 일체감을 조성합니다. 병원의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 전달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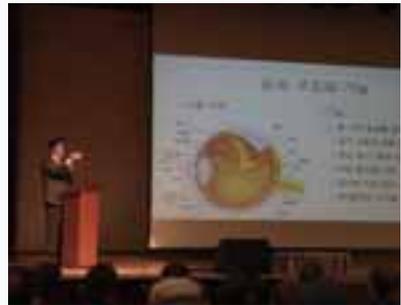
### 국제진료

-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도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을 알리고, 외국인환자를 우리 병원으로 유치하고 외국인환자의 진료편의를 위한 통역, 서류 업무 등을 지원합니다.
- 외국의 병원, 정부기관, 교육연구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체결하고, 국내외 행사지원,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연수를 위해 우리병원을 방문한 외국인인사의 국내 체류 지원 업무도 담당합니다.



### 사회공헌활동

- 초대병원장 장기려 박사님의 봉사 정신을 이어받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선한 병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병원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관들과 함께 지역사회 무료 건강검진, 건강강좌를 개최하고, 의료진 섭외 및 일정 조율, 관련된 홍보물 제작, 제3세계 의료선교 업무지원과 같은 오지 의료봉사 업무도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홍보실

원내 사진 촬영, 환자 호출프로그램 관리, 병원사 및 각종 행사자료의 보관, 미술전시와 음악행사를 포함한 원내 행사지원 등 명확한 업무 구분이 어려운 다양한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외 소통이 필요하십니까? 원내외 홍보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바로,

대외협력홍보실 대표번호 3700으로 전화주세요!

우.부.서

대외협력홍보실



새롭게 단장한 고신대복음병원의 홈페이지가 오픈하였습니다. 새로워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고 홈페이지에 대한 의견과 함께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참여하신 분들을 추첨을 하여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 이벤트 참여 방법

- ① 고신대학교복음병원 홈페이지 방문해주세요.
  - ② 카메라를 열어 QR 링크 접속 후 홈페이지에 대한 의견과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 이벤트 기간 : 2025년 4월 18일(금)까지



| 네 번째 주인공 |

#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서

환자와 병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료의 모습, 닮고 싶습니다. 칭찬합니다!  
 일터를 사랑하고, 환자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폈던 초대병원장 故 장기려 박사님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습니다! 칭찬릴레이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바랍니다.

간담도취장외과 · 이식외과  
**조지훈** 교수님 추천

간담도취장외과 · 이식외과 **임병은 PA**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환자들에게 친절한 설명과 처치를 해주시고 수술실에서 동료 간호사와 집도의를 많이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가끔 당직이 아닌데도 일손이 모자라면 외과 응급 수술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동안 한결같이 성실한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간담도취장외과 · 이식외과 **임병은** PA간호사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과분한 칭찬을 받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칭찬을 받을 만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생각하지만,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환자들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항상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조지훈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T준비실 **김정남** 책임간호사 선생님 추천

혈액종양내과 이식 코디네이터 **정성미** 간호사를 추천합니다.  
 골수이식이라는 낯설고 두려운 치료과정에 대해 교육, 설명함으로써 환자의 이해를 돕고 치료과정에 대한 위로가 됩니다. 환자들에게 이식 후 관리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두려움 없이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혈액종양내과 이식 코디네이터 **정성미** 책임 간호사

수련의 부재로 많은 업무와 환자들 속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던 중, 칭찬 메시지를 받아 깜짝 놀라고 기쁘면서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지쳐 있었는데, 칭찬에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혈액종양내과 교수님들, 전담 선생님들 모두 바쁘고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 배려하며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칭찬받을 자격이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03병동 정미연 선생님 추천

504병동 최향숙 수간호사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병동의 환우들과 보호자, 그리고 함께 일하는 병동 식구들에게도 늘 따뜻한 친절함으로 504병동을 이끄시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실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모아 칭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4병동 최향숙 수간호사

병원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같아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부담감도 느낍니다. 앞으로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만나는 선생님들,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 진심을 다해 섬기는 마음으로 더욱 겸손하게 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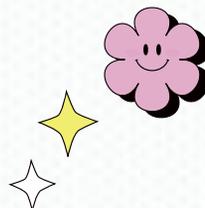
PC보수실 윤양덕 선생님 추천

원무부의 김찬미 선생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김찬미 선생님은 항상 밝은 웃음과 따뜻한 미소로 내원객을 맞이하고, 그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로 응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고, 맡은 바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해결책을 찾아내고, 동료들과 협력해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김찬미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원무부 김찬미 사원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위해 곳곳에서 힘써주시는 원무부 선생님, 외래 간호사 선생님, 교수님 등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칭찬 릴레이에 선정된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마주하는 처음과 마지막 업무를 보는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만큼 친절함을 잊지 않고 더욱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 be continued 여름호에서 계속됩니다

2024년 12월 ~ 2025년 2월

# 내원객이 칭찬해주신 **우리 병원 친절직원**

- 12월1주차 503병동
- 12월2주차 김창주 교수(안과) | 이진우 팀원(보안팀)
- 12월3주차 김시은 간호사(508병동)
- 12월4주차 김재현 교수(소화기내과) | 강희원 간호사(361병동)
- 12월5주차 이주아 간호사(525병동) | 이주희 간호사(508병동)
- 1월1주차 507병동 | 천영주 간호사(508병동)
- 1월2주차 이주희 간호사(508병동)
- 1월3주차 변시연 간호사(508병동) | 정원길 교수(완화외과) | 525병동 | 자원봉사자
- 1월4주차 문원 교수(소화기내과) | 소화기내과 외래 | 361병동
- 2월1주차 최종순 병원장(가정의학과) | 508병동
- 2월2주차 손순진 책임간호사(352병동) | 박무인 교수(소화기내과) | 박선미 간호사(소화기내과 외래)
- 2월3주차 성수완 간호사(508병동)
- 2월4주차 신운유 간호사(352 병동) | 이옥자 책임간호사(주사실)



최근 3개월 병원에 비치된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고객님의 빠른 쾌유와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칭찬 한마디가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  
조정민 | 두란노 |  
2024년 3월 20일

**책소개**

“다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리라” 세상 것을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까?  
- 내가 반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른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반그리스도인이란?  
‘반(反)그리스도인’이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타 종교인이지만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지만 반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비록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예수님께 호감이나 관심이 있는 사람은 반(半)그리스도인, 즉 ‘하프(half)’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  
과연 누가 반그리스도인인가? 반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오해하게 하고, 심지어 교회를 외면하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뜻에 반하는 일만 일삼는 사람, 그가 바로 반그리스도인이다. 반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할 때 보이는 솔한 모습이고, 심자가 없는 영광을 바랄 때 보이는 정욕의 얼굴이다. 이러한 반그리스도인은 교회 밖보다는 교회 속에 훨씬 많다. 어쩌면 평생 그리스도 주변을 서성이지만 그 중심은 언제나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일 것이다.  
저자는 이기적 그리스도인, 낙심한 그리스도인, 음란한 그리스도인, 섭섭한 그리스도인, 불만인 그리스도인, 불쌍한 그리스도인, 게으른 그리스도인 등 7가지 키워드로 반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저자소개 | 조정민**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열정을 불사르며 기독교를 비판하던 저자는 생명의 길인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꿈을 품고 목사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많은 종교적 방향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 시대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 또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저자는 MBC 사회부·정치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뉴스데스크> 앵커, 보도국 부국장, iMBC 대표이사, 온누리교회 목사, CGN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베이직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다. MBC <무한도전>, KBS <아침마당>, CBS <새롭게 하소서> 등에 출연했으며, 강단과 매체에서 복음과 신앙의 본질을 전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저서로 <Why Jesus 왜 예수인가?>, <Why Pray 왜 기도하는가?>, <사람이 선물이다>, <예수는 누구인가?>, <매일 기도>, <사랑합니다>, <조정민의 답답담>(이상 두란노) 등이 있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과 같이 걷기**  
맥스 루케이도 저자(글) | 박상은 번역 | 생명의말씀사 |  
2024년 4월 23일

**책소개**

예수님이 건너시던 땅과 사복음서에서 걸어 올린 맥스 루케이도만의 따뜻하고 또렷한 위로의 이야기들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쓰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도 오실까요?”  
“여전히 저와 함께하시나요 하나님?”  
우리 시대 최고의 성경 스토리텔러이자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 맥스 루케이도의 신작이다. 앞선 그의 책들이 오래 그려해 왔던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과 같이 걷기』 역시 따뜻하고 위트 있으면서도 잘 버린 영적 통찰력을 놓치지 않는 메시지를 독자 곁에 안긴다. 지치고 상처 입은 사람들, 불만과 고민으로 서성이는 이 시대 크리스천을 성경의 든든한 토대 위에 다시 세워 놓는다.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과 같이 걷기』는 예수님과 함께한 길 위의 순간들을 포착하여 들려 주는 점이 독특하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을로 데려가 요셉의 서성이든 마음 곁에 서게 하고, 예수님을 바빠 앞장서던 아이로의 속울음을 듣게 한다. 장례를 막 마치고 기운 없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옆에 나란히 걸음을 포개게 한다. 별이 총총한 하늘과 피곤에 찌든 여행자와 양치기를 만나게 한 베들레헴,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곳이자 우리 모두의 고향인 갈릴리 바닷가 마을, 당시 없는 삶보다 당신을 위한 죽음을 택하신 예루살렘과 갓세마네 등 독자들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예수님이 건너시던 곳을 함께 거닐며, 그분의 약속을 곰곰이 생각할 수 있다. 그분의 음성들 들으며 기꺼이 한 발 내딛을 수 있다.  
책에는 산만한 우리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한 플랜(PLAN)과 예수님의 염려 처방전 여덟 가지, <말씀과 삶에 있는 묵상 질문>도 차곡차곡 실렸다.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활용하여 늘 익숙하던 성경의 본문도 보다 새로이 읽히게 한다. 맥스 루케이도가 들려 주는 성경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 곁으로 바짝 다가갈 수 있다.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맥스 루케이도와 함께하는 행복 연습』, 『나는 이 때를 위해 지음받았다』까지 다섯 권째 맥스 루케이도와 호흡하며 책을 번역해 온 역자가 이번에도 맥스 루케이도만의 글맛을 잘 살려 번역했기에 읽기의 기쁨이 더욱 크다. 맥스 루케이도의 신간이라면 반가운 마음으로 읽어 드는 독자는 물론, 공동체 독서, 북클럽,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선물용 도서로도 추천할 만하다. 피로 사회, 지친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다시 들려 줄, 은혜를 다시 일깨워 줄 목소리가 오늘도 여전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일은 맥스 루케이도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저자소개 | 맥스 루케이도**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책을 쓴다”고 말하는 우리 시대 최고의 이야기 설교자이자, 베스트셀러 기독교 작가. 시적인 스토리텔링과 소박한 유머 속에 목회자의 마음을 담아, 말씀에 깊이 울곧게 뿌리내린 이야기들로 독자를 이끈다.  
전 세계 56여 개 언어로 번역된 그의 책은 ECPA(Evangelical Christian Publisher Association)에서 선정하는 골드메달리언을 일곱 번 수상했고, 그중 세 권은 ‘올해의 책’으로도 선정되었다. <크리스천투데이>는 그를 ‘이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로, <뉴욕 타임스>는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중 한 사람’으로 꼽았다.  
국내에 소개된 책으로는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알에이치코리아), 『너는 특별하다』(고승도치), 『예수님처럼(복있는사람)』, 『주와 같이 걸 가는 것』(IVP), 『짐은 가볍게』(바이토르), 『베들레헴 그날 밤』(바람이불어오는곳), 『맥스 루케이도와 함께하는 행복 연습』,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나는 이 때를 위해 지음받았다』,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이상, 생명의말씀사) 등이 있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 유행성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시

[2024.11.21.]

고신대복음병원은 11월 20일 유행성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유행성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은 조류인플루엔자 환자의 발생에 대비하여 의료진 및 직원들의 현장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행했다. 훈련은 상황접수 및 보고체계를 점검하는 과정부터 시작하여 환자의 음압격리병상 이동 →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신고서식 및 역학적 연관성 확인절차 → 감염관리 보고 프로세스 확인 → 판정과 처방 및 검체 채취 → 국가지정 격리병상 이동 → 격리의로 폐기물 처리 절차의 순으로 실제 상황처럼 진행했다. 이와 별개로 감염관리실에서는 대응 실무팀 교육으로 유행성 감염병 정보 및 개인보호 후 처할의 훈련도 진행됐다. 양다해 감염관리실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유행성 전염병은 언제든 우리 일상을 파고 들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확률은 낮지만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이라는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복훈련을 통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인식개선 캠페인 개최

[2024.11.27.]

소아청소년완화의료센터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병원 중앙로비에서 '2024년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인식 개선 캠페인'을 열었다. 소아청소년완화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24년 4월 지정분야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24세 이하의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 과정 중에 환자와 가족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완화의료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병원을 방문하는 일반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을 위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필요성을 알리고, 완화의료에 필요한 대상자가 적시에 의뢰되어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토부스 팝업행사, 풍선아트, 기념품 받기 행사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해 성황을 이루었다. 공성김 센터장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중증질환으로 진단받은 초기부터 치료 팀과 협력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루어 완화의료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고신대병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은 적극적인 통증과 증상 조절,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과 심리·정서적 지지 등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제22회 QI경진대회 성료

[2024.11.28.]

고신대복음병원은 11월 27일 장기리기념암센터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22회 QI경진대회'를 개최했다. 2003년부터 시작한 고신대병원의 QI 경진대회는 매년 한차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을 각 영역별로 평가한 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250여명의 교직원들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와 정보를 공유하며 환자에게 더욱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총 26개팀이 참가, 심사를 거쳐 7개팀이 본선에 올랐으며, 사전 제출된 사례 중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5개 팀을 선정했고, 병원 중앙로비에서 포스터 전시회(18일-22일) 이후 우수 포스터 수상작을 결정했다. 이날 경진대회 대상은 내과계중환자실 석우교 간호사의 '인공호흡기 안전관리 수행능력 향상활동', 금상은 신경계 중환자실 이진아 간호사의 '표준화된 신체보호대 적용 프로세스를 통한 개선활동'이 차지했다. 또 CP우수상은 '안과 표준진료지침(CP)관리를 발표한 안과 김보람 간호사에 돌아갔다.



## • F o c u s V i e w •

### 혈액종양내과 이호섭 교수, 부산시 의사회 의학대상 학술상 수상 영예

[2024.11.29.]

이호섭 교수(혈액종양내과)가 부산시 의사회 의학대상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지난 11월 23일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24년 제49회 부산시의사회 학술대회 및 의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제43회 의학대상 학술상을 수상했다. 의학대상 학술상은 부산시 의사회 소속 의사들 가운데 매년 가장 왕성한 학술활동을 펼친 의사들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상이다. 고신의대를 졸업하고 부산의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호섭 교수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에서 교환교수를 역임했다. 지난 2017년에도 부산시 의사회 의학대상 시민보건의학 연구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2009년 대한암학회 학술상, 2019년 대한혈액학회 우수논문심사자상, 2022년 대한내과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의료인으로는 눈부신 연구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이호섭 교수는 “귀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학술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50년을 바라보는 고신대병원 암센터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 4주기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현판식 개최

[2024.12.02.]

고신대복음병원이 12월 2일 병원 로비입구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지난 9월, 신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4주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우수한 점수로 통과하고 보건복지부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인증유효기간은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8년 11월 14일까지다. 최준순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재진입을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지정받았고, 숨돌릴 틈없이 바로 의정갈 등 위기 수습과 4주기 인증평가까지 준비하느라 교직원들의 노고가 어느 때보다 컸다”고 말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4주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계기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내년에는 더 높은 꿈을 향해 도약하자”고 말했다. 최근 고신대복음병원은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선정 기관으로도 선정되며 상급종합병원으로 우수한 역량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 완화의료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성료

[2024.12.03.]

고신대복음병원은 12월 3일 병원 로비 및 예배실에서 ‘완화의료센터 10주년 기념식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낮 12시 30분부터 병원 로비에서 호스피스자원봉사자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이후 예배실에서 기념예배와 공로상 수여를 비롯한 2부 행사를 진행했으며, 3부 순서로는 완화의료센터를 이끌고 있는 공성김, 신성훈(센터장), 정원길, 정현엽 교수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완화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했다. 1992년부터 호스피스 병동을 개소한 고신대병원에는 매년 두차례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2014년에는 부산지역 대학병원 중에서 최초로 호스피스 전용병동을 구축하여 호스피스 환우들에게 전인적인 치료를 도맡아 왔다. 특히 2015년부터는 부산 서구정과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 완화 돌봄사업 협력병원으로써 지역으로 취약계층을 케어하는데도 앞장서 왔다. 이후 고신대복음병원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서 완화의료센터로 명칭을 개편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도 선정돼 일반 병동이나 외래에서 말기 암 혹은 말기 만성폐쇄성폐질환, 말기 만성간경화 환자들이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면서 신체 증상관리 자문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장기려 박사 소천 29주기 추모예배 개최

[2024.12.12.]

고신대복음병원과 학교법인 고려학원은故 성산 장기려 박사 소천 29주기를 맞아 12월 12일 오전 1등 3층 예배실에서 추모예배를 개최했다. 이날 예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장 정태진 목사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유연수 목사, 고려학원 손광호 이사, 고신대학교 이정기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故 장기려 박사는 신실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1951년 영도 천막 무료진료소 시절부터 인술을 베풀며 평생 박애, 무소유를 실천하여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별칭을 얻었다. 수술비가 없는 가난한 환자들의 비용을 자신의 돈으로 치료하며, 1995년 12월 25일에 소천하기까지 환자들을 돌보았을 뿐 아니라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 설립을 통해 현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기틀을 세운 대표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고신대복음병원에서는 2013년 장기려 기념 암센터를 오픈하였으며, 2019년부터 고신대복음병원과 성산 장기려기념사업회에서 제공한 장기려 박사의 생전 자료를 통해 병원 중앙 로비와 1등 3층 복도에 장기려 박사 추모공간을 마련했으며, 병원 내원객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제3세계 위한 디지털 헬스 글로벌 심포지움 성료

[2024.12.16.]

고신대복음병원은 고신의대와 부경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12월 13일 고신의대 성산관에서 디지털 헬스 글로벌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고신대복음병원 미래연구센터와 한아프리카 국가기반 조성 사업단이 주관한 이번 심포지움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제 3세계 지역에 디지털 헬스 기술을 활용한 여성암 조기 진단 및 예방 사업을 논의 위해 마련됐다. 1부 세션에서는 남아프리카 디지털 헬스 현황에 대해서 3개의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강의는 아프리카 현지 관계자들이 실시간 중화상회의로 직접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2부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여성암 조기검진 솔루션에 관하여 부경대 의공학과 남승윤 교수와 LG 전자 최규남 상무가 좌장을 맡았고 부경대 오정환 교수, 고신대병원 정성희 교수, 옥철호 교수가 갑상선 유방암 및 여성암 검진 의료 기기와 사후관리 플랫폼 개발에 대한 주제의 강의를 진행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오고 있는 고신대복음병원은 매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에서 자궁경부암 조기진단을 위한 초간편 영상진단법을 이용해 낙후된 지역 보건의료료를 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한국선재 주식회사, 고신대복음병원에 1억원 기부

[2024.12.18.]

부산지역 대표강소기업 한국선재 주식회사(대표 이재훈)가 12월 17일 고신대복음병원에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 한국선재는 철강업체로 지난 40여년 부산지역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특히 아연도금철선 제품은 우리나라와 일본 시장 점유율 1위 기록하는 경쟁력을 자랑한다. 이날 고신대복음병원을 방문하여 기부금 전달식을 가진 한국선재 이재훈 대표이사는 "부산의 기업인으로서 70년이상 부산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온 고신대병원이 앞으로 지역민들의 의료질 향상에 기여해주길 소망하는 바램을 담아 기부금을 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최중순 병원장은 "성탄과 연말연시를 맞이한 시점에서 이재훈 대표님의 통근 기부에 감사드린다"면서 "기부의 뜻이 희석되지 않도록 더욱 지역을 섬기는 복음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감사인사를 전했다.



## • F o c u s V i e w •

### 수혈 적정성 평가 '만점 1등급 획득'

[2024.12.20.]

고신대복음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2차 수혈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100점을 기록하며 1등급을 획득했다. 수혈 적정성 평가는 안전성 향상과 적절한 수혈을 도모하고자 실시되는 평가제도다. 수혈은 동족면역, 수혈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수혈환자의 안전 관리와 의료기관의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평가 항목이다. 이번 평가는 적혈구제제 수혈 및 특정 수술 환자의 안전한 수혈 관리와 적정성 확보를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참여한 의료기관의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76.3점, 중별 평균은 84.1점으로 나타났다. 1등급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총 241개소(41.5%)로 집계됐다. 고신대병원도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 만점을 기록하며, 적정수혈을 위한 수혈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환자들에게 안전한 수혈을 제공하며, 안전하고 적절한 혈액 사용 관리를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 2025년 신년 시무식 개최

[2025.01.02.]

고신대복음병원은 1월 2일 오전 교직원 식당에서 병원보직자 및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진행했다. 시무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유연수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은 “외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음에도 신앙으로 한마음 된 교직원들이 있었기에 회복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하며 “새해에도 믿음으로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 함께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시무예배 순서 중에는 복음병원 교수연합 찬양팀이 ‘비 준비하시니’라는 곡의 찬양으로 섬기기도 했다. 지난해 의정갈등 위기가운데 고신대병원은 의료진을 비롯한 교직원들은 단합된 모습으로 다른 상급종합병원 보다 빠르게 병원을 정상화하는 저력을 보인바 있다. 이날 시무예배 이후에는 병원 중앙로비에서 대형 액자 제막식이 거행됐다. 고신대복음병원은 2025년을 맞아 75명의 기도하는 교직원들의 손을 액자화 하여 십자가 형태로 제작했다. 최 병원장은 “기도하는 손의 의미는 모든 교직원들이 믿음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기독교병원의 정체성과 섬김의 자세를 강조했다.



### 2024년 지역응급의료센터 A등급 획득

[2025.01.07.]

고신대복음병원 응급의료센터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 최우수 A등급을 획득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장비, 인력, 운영 등 7개 영역 228개 지표에 대해 2024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응급의료센터의 안정성과 효과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그리고 환자모니터링 등 상세한 항목에 대한 평가로 진행됐으며 특히 A등급에 해당하는 센터급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의 재실시간 및 분담률과 구성비 등 중증환자 점수가 크게 작용했다. 고신대병원은 지난해 의정갈등 상황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료진 공백을 최소화 하고 2023년 개소한 응급의료센터내 '중증응급구역'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점이 A등급 획득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 고신대병원 최중순 병원장은 “어려운 대외여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센터를 지켜주신 의료진 덕분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면서 “계속해서 중증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지역응급 의료체계가 굳건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 비수도권 최초 로봇유방암수술 250례, 유방입체정위생검 300례 돌파

[2025.01.10.]

고신대복음병원 유방센터가 비수도권으로는 최초로 로봇 유방암수술 250례와 유방입체정위생검 300례를 돌파했다. 지난 2023년 지방의료기관 최초로 로봇유방절제술 100례를 돌파한데 이어 고신대복음병원은 인튜이티브 서지컬사의 유방암 로봇수술 참관센터로 지정되어 국내 기관은 물론 해외 기관을 대상으로도 참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신대복음병원 로봇유방암수술은 유방외과 의료진과 성형외과 의료진이 함께 팀을 이루어 로봇 유방암수술과 함께 유방재건수술을 진행함으로 종양학적으로 안전할 뿐 아니라 미용적 효과까지 극대화하여 높은 환자만족도를 얻고 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유방입체정위생검 300례를 돌파했다. 유방입체정위생검(Stereotactic biopsy)은 초음파상 잘 보이지 않거나 저명하지 않은 병변이나 유방촬영영상에서는 미세석회나 구조왜곡으로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전신마취하 유방절제를 통한 조직검사가 아닌 국소마취하의 조직생검을 말한다. 획기적으로 시간이 단축되고 통증도 크게 완화되어 환자중심의 조직검사로 떠오르고 있다.



## 고신대복음병원-노동조합 함께한 '사랑과 섬김의 헌혈캠페인' 성료

[2025.01.21.]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1월 21일(화) 민주노총 고신대병원지부와 함께하는 사랑 나눔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2025년 새해를 맞아 노사가 하나가 되어 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국적인 혈액 수급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이번 헌혈 행사를 기획했다. 헌혈 캠페인은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100명의 교직원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100회 이상 헌혈로 적십자로부터 헌혈 유공장 명예장을 수여받은 교직원, 50회 이상 헌혈로 금장을 수여받았던 교직원 등 이날 대거 헌혈에 동참했다. 민주노총 고신대병원 이선옥 지부장은 "지난해의 정갈등 위기 가운데 조합원이 한마음으로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힘썼다"면서 "새해를 맞아 조합원 모두가 복음병원의 일원으로서 나눔을 실천하는 병원의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한"이라는 취지를 설명했다. 최중순 병원장은 "헌혈행사에 노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노사가 하나 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사랑을 나누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 유방외과 김구상 교수, 병원에 1000만원 기부

[2025.02.28]

유방외과 김구상 교수가 최근 병원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김 교수 부임이후 복음병원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로봇유방암 수술 250례를 돌파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복음병원은 세계 최대의 로봇수술 장비업체인 인튜이티브서지컬사로부터 'RNSM (Robotic Assisted Nipple Sparing Mastectomy)' 로봇을 사용한 유두 보존 유방암절제술에 관한 참관교육센터로 지정받았다. 지금까지 국내외의 유수의 대학병원 외과의들이 김 교수로부터 로봇유방암수술을 배우기 위해 고신대병원에서 단기 연수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유방외과 뿐 아니라 두경부갑상선외과 교수로도 진료를 보고 있으며, 부임이후 매년 두 차례 해외의료선교활동 참가할 만큼 일인다역을 자처하고 있다. 함께했던 2023년 남아공 의료선교에서 프라미스라는 여성 환자의 유방암을 발견하고 국내로 초청하여 수술을 집도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복음병원에서 진료뿐 아니라 의료선교 사역에 동참함으로 얻은 것이 참 많은 것 같다"면서 "작은 정성의 표시지만 이번 기부를 통해 복음병원 의료진들의 기부릴레이가 확대되기를 소망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 진료를 시작합니다

감염내과  
**이수진** 교수



**+ 전문진료분야**  
감염내과 일반진료

방사선종양학과  
**마선영** 교수



**+ 전문진료분야**  
유방암, 부인과종양,  
하부소화기종양  
국내연수 후 진료재개

소화기내과  
**정경원** 교수



**+ 전문진료분야**  
치료 내시경 (조기 식도암,  
조기 위/대장암), 아칼라지아 (POEM), 위  
암, 식도암, 용종,  
기능성 소화기질환  
해외연수 후 진료재개

신경과  
**나주영** 교수



**+ 전문진료분야**  
두통, 어지럼증, 치매

신경외과  
**이학수** 교수



**+ 전문진료분야**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혈관내 수술,  
급성 뇌경색 신경중재치료,  
자발성 뇌출혈, 외상성 뇌출혈,  
신경계 중환자치료

심장내과  
**김봉준** 교수



**+ 전문진료분야**  
심부전, 폐고혈압  
해외연수 후 진료재개

안과  
**이승하** 교수



**+ 전문진료분야**  
신생아 망막, 일반안과

이비인후 갑상선  
두경부외과  
**권재환** 교수



**+ 전문진료분야**  
중이수술, 난청, 이명, 어지럼증,  
귀의 염증, 삼출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 고막  
질환, 소아 귀 질환, 인공와우이식,  
선천성 이개질환, 귓볼 켈로이드,  
중이 진주종, 비과:축농증, 비성형,  
안면재건, 안와골절, 비골골절, 코피,  
산재 특별 진찰

국내연수 후 진료재개

피부과  
**박종빈** 교수



**+ 전문진료분야**  
피부종양, 피부암,  
알레르기피부질환  
해외연수 후 진료재개

해의학과  
**김범수** 교수



**+ 전문진료분야**  
해의학과 일반진료



# KOSin 사랑in

Jang Gee-Ryeo Memorial Center for Medical Mission

##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

Jang Gee-Ryeo Memorial Center for Medical Mission, JMCM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 의료를 통한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부속 기관으로, 의료선교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 및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평생을 사랑과 봉사, 청빈한 삶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헌신하신 초대병원장 장기려박사님 (1911~1995)의 정신을 이어받아, 참 의사이자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의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 2024년 하반기, 2025년 1월 의료선교 활동

#### 1. 장기려기념의료선교센터 의료선교 전시회

기간: 2024.12.23.(월)~2024.12.24.(화) 11:00~17:00

장소: 고신대학교복음병원 6동 로비

내용: 페루, 남아공, 필리핀, NK, 국내 의료선교활동 사진 전시

#### 2. 김해 다문화 어린이 및 학부모를 위한 의료선교

2024.10.27.(일), 합성초등학교(김해)

2024.11.17.(일), 진영금병초등학교(김해)

2024.11.30.(토), 동광초등학교(김해)

▶ 의료봉사를 위한 약품지원, 문화사역 및 어린이사역 지원

#### 3. 2025년 해외의료봉사 지원

기간: 2025.01.23.(목) ~ 2025.01.29.(수)

지역: 필리핀, 뚜게가라오 (팀명: 뚜게더 가라오!)

참가: 37명 / 진료: 1,164명





■ 필리핀 의료선교 일정

날짜	내 용
1월 23일(목)	마닐라 공항 밤 도착
1월 24일(금)	1진: 뚜게가라오 이동 → 뚜게가라오와 LJCA 학교학생들 환영식 → 의료선교 및 어린이 사역 → SFC 집회
1월 25일(토)	비싸구 아파리 교회(차이나SEA)로 이동 → 의료선교 및 문화, 어린이 사역 2진: 1 라굼 교회 의료선교
1월 26일(일)	1진: 뚜게가라오 주일 예배 → 8 라굼 교회 문화 사역 2진: 2 라굼 교회 주일 예배 및 의료선교 → 4 라굼 교회 예배 참석
1월 27일(월)	1, 2진 8 라굼 교회 전체 합류 → 8 라굼 교회 의료선교, 어린이 사역
1월 28일(화)	고신대복음병원과 원격협진 → 의료선교 및 문화 & 어린이 사역 : 바씨교회
1월 29일(수)	뚜게가라오 → 마닐라 공항 → 김해공항 밤 도착

■ 필리핀 진료과목 및 인원

진료 과목	진료인원
내과, 소아청소년과, 호흡기내과	547명
X-ray 촬영	177명
성장판 검사	65명
일반외과	50명
산부인과	8명
유방 초음파	67명
갑상선 초음파	114명
복부 초음파	136명

■ 참여·협력·후원 문의: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 (051) 990-5775



# 외래진료시간표

2025년 3월 기준

※ 대표전화 ☎990-6114, 991-0675, 응급의료센터 ☎990-6119

※ 진료문의는 ☎990-6114, 진료예약은 990-690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가정의학과	최종순	화	월,목	비타민 고용량요법, 암의 보연통합요법, 노인의학, 특이증상클리닉(자율신경 실조증), 만성피로클리닉
	공은희	월,수, 목	수	비만, 임상영양, 금연, 기능의학
	김지훈	화,금	화,금	근골격계 통증클리닉, 자율신경주사, 만성두통, 암 경험자 평생 건강관리, 성인예방 접종, 금연클리닉, 유전자검번 비만 클리닉, 만성피로클리닉, 노인의학
간담도췌장외과· 이식외과	신동훈	월,목	화	간, 담도, 췌장, 이식외과
	최영일	화,금	화	간이식, 간담도, 혈관, 간담체클리닉
	문형환	수	수,목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간담체내과	조지훈	수	화,금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이상욱	월,수	월,수	간, 담도, 췌장 질환(간암, 간경화증, 급,만성 간염)
	서광일	해외연수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박현준	화,목,금	목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감염내과	이정욱	월,수,금	목	췌장·담도계 질환(담석증, 담낭염, 담관염, 담관암, 급·만성 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종)
	조수민	화,목	화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진수술	수		감염내과 일반진료
내분비내과	이수진	월, 화	목	감염내과 일반진료
	김부경	화	월,수	비만,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뇌하수체, 부신
	박성우	월,수,목	화	당뇨병
대장항문외과	박태훈	화,금	월,목,금	내분비(당뇨)질환
	안병권	화,목		대장암, 직장암, 대장직장클리닉
	이승현	월,수	월,수	대장항문클리닉
두경부갑상선 내분비외과	이승훈	금	화,금	대장, 탈장, 복강경 로봇수술
	문예진		목	대장항문외과 일반진료
	이지은	월, 화	화,수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부갑상선질환, 로봇갑상선수술, 갑상선최소절개수술
류마티스내과	김구상	수		로봇갑상선수술(경구, 액와), 갑상선암, 고주파열치료, 조직검사, 세침검사, 고주파열치료클리닉
	김근태	수,금	월, 화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베체트병, 관절초음파 클리닉
	김윤경	월,목	수,금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 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베체트병, 관절 초음파클리닉
마취통증의학과	류시정	월,목		통증관리
	김두식	화	화	통증기전연구, 만성통증치료, 암성통증관리
	김동희	금	금	급만성통증의학, 암성통증, 무위마취, 대사비만수술마취, 신체감정
방사선종양학과	김지욱	수	수	통증관리, 중환자의학, 뇌신경마취, 산과마취
	박경란	수,목	화,목	유방암, 간담췌암, 뇌종양, 방사선수술
	마선영	수,금	월,수	유방암, 부인과종양, 하부소화기종양
비뇨의학과	유제상	화,금	화,금	두경부암, 비뇨기암, 림프종, 혈액암, 피부암, 근골격계종양,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흉부(폐, 흉선), 식도
	류현열	월,수		요로종양, 전립선, 신장이식, 종양클리닉
	최성	화,목	월,목	전립선, 여성비뇨기, 종양, 전립선클리닉, 요실금클리닉
산부인과	김택상	월,수	수	비뇨기종양, 로봇수술
	김수환	화,목	화	로봇수술, 비뇨기암, 결석
	김원규	화,금	화	부인암, 종양, 내시경수술, 로봇수술, 단일공수술
성형외과	이태화	월,수,목	월	부인암, 내시경수술, 부인종양
	오영림	월,목	목	고위험 임신, 조산
	윤항구	화,금	수	모체대아의학, 고위험 임신, 조산
소아청소년과	강태경	수,목		일반 부인과 질환, 부인과 내분비학
	김은택	수	수	부인질환(근종, 난소종양, 자궁내막증, 자궁탈출증), 부인종양, 부인암, 부인암 유전상담, 폐경, 로봇수술, 내시경수술(부인암 분과전문외)
	박진형	월	월	유방재건, 미세수술, 미용
소아청소년과	이형석	수,금	수	당뇨병, 육창, 피부부, 눈성형, 두경부재건, 소아성형, 유방재건
	김홍일	해외연수		수부질환, 수부외상, 선천기형, 두개안면외상, 피부종양, 흉터성형
	김윤수	화	화,목	유방재건 및 유방성형, 체형성형, 미용/흉터 성형, 피부종양, 안면골절
소아청소년과	홍유라	목	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정유진	수	금	소아청소년과
	이정현	월,수,목		성형클리닉(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대사질환(고신장, 사춘기 지연, 갑상선질환, 당뇨병, 저혈당, 비만, 갈증 및 인대 장애, 기타 영양 장애)
소화기내과	연규민	화,수	금	소아신경질환(뇌전증, 편두통, 발달지연, 뇌염, 뇌수막염, 신경근질환, 열성경련)
	공성김	월,목,금	화	소아혈액종양질환(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모이식, 빈혈, 혈우병, 자반증, 출혈성질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최소윤	해외연수		소아소화기염양분과 (소아소화기질환(위장관, 간담췌장), 소아염증성장질환(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영양 질환, 비만, 저체중, 소아위장관내시경)
신경과	박선자	월,수	월, 화	응종(선종), 종양의 내시경적 수술, 소화기암, 진행성암환자 항암치료,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결술, 소장, 위 및 대장의 상피병변(내시경초음파), 위양성 말초림프종, 기능성소화불량, 과민성장증후군, 소화성 궤양)
	박무인	월,목,금	수	위, 식도, 십이지장의 용종(선종), 종양의 내시경적 수술, 식도인발능증, 내시경 근절개술(POEM), 위식도역류질환, 헬리코박터피로리균 관련질환(위염/트림프종/표), 위무술)
	문원	화,목	화,목	대장암 클리닉,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결술, 소장), 용종(선종), 종양의 내시경적 수술(대장폴립절제술/위), 유전성 대장폴립증후군, 대변이식치료, 기타 소화기질환
신경과	김성은	화	수,목	치료 내시경(조기 식도암, 조기 위/대장암), 아칼라지아(POEM), 위암, 식도암, 용종, 기능성 소화기질환
	김재현	금	월,수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일반 소화기 진료
	정경원	화,수,금	월,목,금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소화성궤양, 용종
신경과	이명훈	수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소화성궤양, 용종
	최윤정	수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소화성궤양, 용종
	손민영	목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소화성궤양, 용종
신경과	유봉구	월,화,수	화	뇌졸중, 치매, 두통
	김명국	수,목	월,화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김민정	금	금	파킨슨병, 이상운동질환
신경과	이진형	화,금	화	뇌졸중,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치료
	전병준	목	월,수	다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말초신경병, 근육병
	나주영	월	수,목	두통, 어지럼증, 치매
신경과	조혁래	월,수	월	뇌종양, 두개저종양, 삼차신경통, 안면경련
	박정현	화,목	화	뇌혈관 중재적 수술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김도연	월	월,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위증, 척추종양, 척추변형, 두부외상, 척추외상
신경과	심용우	수, 금	금	뇌혈관질환, 뇌종양, 뇌혈관중재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이학수	월	수,목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혈관내 수술, 급성 뇌경색 신경중재치료, 자발성 뇌출혈, 외상성 뇌출혈, 신경계 중환자치료





초대병원장 장기려 박사

---

우리는 그를  
아름다운 의사라 부릅니다.  
마음까지 치료한 의사라 부릅니다.  
의로운 의사라 부릅니다.  
바보의사라 부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를 닮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뜻을 살려 헌신하길 원하는  
백년의 약속

우리는 그를 존경하며 오늘도  
전인치유를 실천 합니다.

---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발전기금 바로가기